



해설 - 정권은 왜 이길영을 보냈을까?

이길영 이사장으로 박근혜 후보는 정치적 이득을 볼까?



'박근혜 피습' 대책 회의하는 이길영

지난 2006년 박근혜는 지방선거 지원 유세 중 과한에게 피습당한다. 이와 관련 김관용 경북도지사 후보(왼쪽에서 두 번째)와 이길영 선대본부장(맨 왼쪽)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TK 유력 정치인들과 한 자리에 모여 파이팅 외치는 이길영

지난 2006년 김관용(왼쪽에서 세 번째)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후보 정견 발표장에 이병석(현 국회부 의장, 맨 왼쪽) 의원과 박승호 포항시장, 권오을 의원, 강석호 의원 등 TK 출신 한나라당 의원 등과 선거 승리를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길영(맨 오른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직 정치인이었다.

학력변조 의혹도 있고 부정채용의 당사자였던 이길영은 어떻게 KBS 이사장까지 넘볼 수 있게 된 것일까? 그의 이른바 '출세'는 철저히 정치적이었던 그의 인생행보에서 찾을 수 있다. 그가 KBS 보도국장이었던 1987년, KBS는 노태우 정권의 탄생을 위해 그야말로 발벗고 나선다. 오죽했으면 KBS의 87년 6.10 항쟁 보도에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이 만족을 표시했겠는가? 민정당 창당 기념일에 9시 뉴스 30여분을 할애하고 선거 유세보도는 현장 소음까지 철저히 인위적으로 조작하면서 방송했던 1987년 KBS 9시 뉴스 보도는 한국 언론사상 가장 불공정했던 최악의 저널리즘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길영-김병호-김인규
5·6공 라인, 25년만에 부활

당시 보도국장이 이길영이었고 정치부장이 김병호, 정치부 차장이 김인규 사장이다. 25년이 지난 오늘 이길영은 KBS의 이사를 꺾은 뒤 곧바로 이사장에 오를려고 하고 있고 김병호는 박근혜 대선 캠프의 공보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길영처럼 KBS에서 보도본부장까지 역임했던 김병호는 한나라당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일찌감치 친박계로 분류되던 인물이다.

만약 이길영이 KBS이사로 확정되고, 연이어 관례상 연장자순으로 이사장까지 된다면, 25년전 가장 악랄하고 편파적인 대선 보도를 주도했던 세 인물이 KBS 내외곽을 둘러싼 형국이 된다. 이길영은 자신이 보도국 휘하에

거느리고 있던 김인규를 사장으로 두고 KBS를 수렴청정하고 동시에 자신이 보도국장일 때 정치부장이었던 김병호와 돈독한 사이를 유지할 것이다. 박근혜에게 유리한 보도, 야당후보 입장에서 편파적인 보도가 강압적으로 생산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내의 정치적 지형이 완성되는 것이다. 간단히 이를 도식으로 정리해 보면 상황은 보다 명확하다.



박근혜-김관용-이길영은 하나의 고리

박근혜가 이길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리는 또 있다. 이길영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김관용 경북도지사 후보의 선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사실상의 정치인이다. 김관용 역시 대구경북 이른바

TK세력의 대표적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박근혜 대선 캠프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구미시의 시장을 지냈으며 구미시에서 열리는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에 박근혜 후보가 참석하면 꼭 바로 옆에서 박 후보를 보필했던 최측근 세력이다. 그 김관용이 경북도지사 후보로 나설 때 선대 위원장, 그리고 김관용 경북 도지사 당선자의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이길영이다.

이길영의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도움될 것인가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정치인 이길영을 KBS 감사로 앉힌 것도 모자라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사장으로 임명해 박근혜의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겠다? 이거 말고는 논리적으로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 것이다. 이길영은 김병호, 김관용 그리고 박근혜로 연결되는 이 무수한 정치적 고리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 그가 KBS 이사장까지 노리고 있는 이 현실의 장막 뒤에선 박근혜와 그의 정치적 동지들이 숨 쉬고 있을 것이다. 이길영이 모시는 박근혜 후보가 KBS를 장악하려고 자신을 내보냈다는 세간의 모든 의혹어린 시선을 무시하고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결단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출세하고자 한다면 KBS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알아보는 게 낫다. 그게 박근혜 후보에게도 여러모로 도움 되는 길이다.

성명 '이길영'으로 일어난 자, '이길영'으로 망한다

어제(31일)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보도자료가 KBS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뜬금없이 우리 노조가 지난 2010년 이길영 감사임명취소청구소송과 관련해 “KBS 감사 결정 사유 없다”는 KBS의 공식 입장으로 공지한 것이다. 우리 노조는 공영방송 KBS 감사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길영 감사가 한방산업진흥원장 시절 친구 막내아들을 부정채용하고 친박근혜 계열이자 구미(박정희 고향)시장 출신인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선대본부장과 인수위원장 등을 했다는 사유였다.

왜 KBS가 현직 감사이자 향후 이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한 개인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을까? 언제부터 공영방송 보도자료가 한 개인을 위해 작성되고 배포되었나. 특히나 이길영 씨를 지지하는 사내 세력이 엄존하는 가운데 그를 위한 보도자료는 KBS홍

보실(실장 배재성)이 ‘이길영의 홍보실’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무엇보다 더 궁금한 것은 김인규 사장이 런던으로 간 사이 올라온 회사의 공식 보도자료가 누구의 지시로 게재됐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KBS 공식입장을 아무런 결재 절차없이 올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길영의 私兵들, 천벌 받을 것이다

이길영 씨는 누구의 작전인지는 모르겠으나 윤혁기 전 SBS 사장이 이사장이 된다는 근거없고 터무니없는 연막을 뒤로한 채 유유히 KBS 이사가 됐고 관례상 이사장이 될 게 명백하다. 이미 이길영 씨 주위에는 권력을 쫓아가는 이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듯 하다. 실제로 이

사추천도 감사실 직원이 한 것이라는 얘기가 돌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감사실 직원들이 업무와는 무관하게 우리 노조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길영 씨가 이사가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한 간부는 벌써 자천 타천 차기 이사회사무국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온다.

대의명분은 저버린 채 자신만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은 이미 KBS의 조직문화가 돼 버렸다. KBS 사상 최악의 감사가 이제 사상 최악의 이사장이 되고자 한다. 부정부패를 철갑처럼 두르고 공영방송을 유린한 이길영을 돕는 자들, 분명 천벌을 받을 것이다.

2012년 8월 1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이길영 이사 선임 취소 1인 시위 시작!

어제(1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앞에서 이길영 현 감사의 KBS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1인 시위가 시작됐다. 어제 김현석 위원장을 시작으로 오늘(2일) 정책실장, 내일(3일) 부위원장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길영 이사 선임 취소 및 징계 규탄 집회 성황리 열려

지난달 31일 본관 민주광장에서 우리 노조는 이길영 KBS 이사 임명 철회 및 집행부 중징계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150여 명의 우리 노조 조합원들이 모여 'KBS의 김재철'로 불리는 이길영 현 감사의 이사 임명의 부당성을 제기했고 노사합의 정신을 위반한 대량징계에 맞서 결연히 투쟁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길영의 깨알같은 얘기 하나 더

지하철 참사 관련 조해녕 전 대구시장 비호 단체 급조 의혹도

●● 2003년 2. 18일 대구에서는 한 방화범에 의해 사망자192명 부상자151명이 발생한 대참사가 발생했다. 이 시기 대구방송 사장을 지낸 이길영씨는 당시 KBS대구 총국장인 이병순, 매일신문 사장 정재완 신부 등 언론사 책임자와 기관장과 검찰기관 등이 중심이 된 대구경북발전위원회의 회원이었다. 이 단체는 유가족들에 의해 지하철 참사로 인해 사퇴압력을 받고 있던 당시 조해녕 시장의 비호와 사고수습의 장기화를 위해 급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이 회의는 '조해녕 시장의 사퇴가 능사가 아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관장들끼리) 잘 도와줘야 한다' 등의 막말을 쏟아 냈으며 항의하는 유가족에게 '초법자가 너무 많다. 미국 같으면 총이라도 맞았을 것'이라는 어이 없는 망발을 저지르기도 했다.

대구지역의 잘못된 주류사회의 안하무인적 인식이 그의 뿌리인 것만은 분명한 듯.

여의도

施罰勞馬

施罰勞馬 : 열심히 일하는 부하직원을 못잡아먹어 안달인 직장상사들에게 흔히 하는 말

부장의 '주연 본능'은 멈추지 않는다.

이길영의 아이들, 활개 치다

●● '윤혁기'를 내세운 엄청난 연막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길영의 아이들이 난리다. 이제 원하시는 분이 사실상 KBS 회장인 KBS 이사장에 등극하게 됐으니 인사니 경영이니 다 주무르겠다는 얘기가 들린다. 벌써 본부장이 누가 된다. 국장이 누가된다는 얘기가 횡행하다. 특히 이사회사무국장에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사람은 전방위적으로 세를 과시하며 자신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리고 다닌단다. 이길영 이사장 작전의 또 다른 공신인 한 직원은 벌써 KBS차이나나 KBS아메리카에 간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KBS 참 잘 돌아간다. 이제 KBS는 특정인을 위한 사영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우식, 안전관리실 사무실에 청경마저 출입 통제

●● 지난 4월 5일자(78호) 우리 노보에서 KBS시큐리티(사장 송원섭)과 안전관리실(실장 신호길)이 200여대 CCTV로 KBS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한다고 고발했다. 당시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나간 이후 안전관리실 청경들이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들의 사무공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언제부터 안전관리실에 특정인만 출입할 수 있었나. 최우식 팀장의 주도 아래 사무실에 칸막이도 설치하고 특정 직원들의 출입마저 막는다니 정말 KBS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믿겨지지 않는다. 하기가 뭐 KBS 이사장이 될 분께서 모든 것을 사면(?)해 주셨으니 그렇게 활개치고 다니겠지...

알립니다

지난 7월 넷째 주 공정방송추진위원회 보고서에서 노보는 KBS 9시 뉴스가 이명박 정부 이후 4년여 동안 침묵하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당.정.청 협의회 직후 인천공항 매각 논란을 심층보도한 것은 그동안 보도국 수뇌부가 권력의 눈치를 봐왔기 때문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노보가 나간 후 해당 보도의 취재진은 평가자들의 자발적 아이템 발제에 따라 7월초부터 기획된 것이었다고 전해왔습니다. 공추위보고서는 단위 뉴스 리포트의 기획과정이나 내용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이후 만성화된 권력 눈치보기를 비판할 의도였음을 알려드립니다.